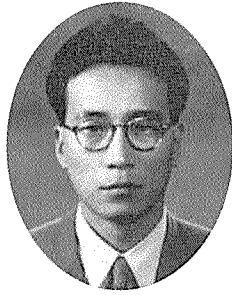


e-business, 새로운 위기와 기회



정몽혁

〈현대정유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1999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5%정도인 72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소들이나 인터넷 업체들은 올해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인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2억명이 넘는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실로 요즘처럼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실감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는 것 같다.

1983년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인터넷망이 가동된 이후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 급속도로 침투해 20년도 채 안되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기업들에게 가져온 변화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전통적인 거래기법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거래에서는 기업간, 기업-소비자간 혹은 소비자 자신들간의 거래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정보나 상품의 판매자 쪽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프로슈머(Prosumer)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거래당사자들 간의 '정보균등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히려 구매자 쪽의 힘이 더 강하게 바뀐 경우도 있는데, 역경매(reverse auction)와 같은 사업 모델의 등장도 그 좋은 예이다.

두번째 변화로는 거래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거래에서는 거래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 새로운 거래처의 탐색비용과 같이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기업간 혹은 기업-소비자간의 거래에서 거래선의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었거나 소멸되고 있다.

세번째로는 기존 유통단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과거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던 중간자 단계(intermediary)가 급속히 소멸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유통단계의 파괴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일찍이 MIT의 석학 레스터 서로 교수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일컬어 '평형단절의 시대' 라고 명명했다. 기존 질서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기회와 위기가 인터넷의 확산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의 국내 정유업계에도 이러한 '평형단절의 시대'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국내 석유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중소 석유수입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석유류 제품의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는 등 시장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찌보면 이것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e-business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정유회사들은 석유제품만을 생산해 판매하던 전통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정유업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던 벤처기업들이나 금융기관 혹은 다른 제조업체들과 활발한 제휴를 맺고, 인터넷을 통한 일종의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정유의 주도로 삼성전자, 현대산업개발 등 11개 대기업들이 모여 제휴를 맺고, 대규모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공동마케팅을 펼쳐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현물시장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융합되기 힘든 대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기업으로 융합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인터넷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우리가 e-business와 관련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석유관련 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주유소의 물류 거점화이다. 정유업체들은 전국적인 주유소망을 확보하고 있어 이런 주유소들을 e-business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정유업체들은 이들 주유소를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에게 있어서 e-business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정유업계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e-business가 단발적인 요식행위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만 디지털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